

한국농어민신문 부사장 인터뷰(안)

- ☐ 매 체 : 한국농어민신문
- ☐ 형 식 : 서면인터뷰
- ☐ 주요내용 : 농지은행관리원 관련 현안사항
- ☐ 취재기자 : 조영규팀장
- ☐ 취재일자 : 23년 2월 21일(화)
- ☐ 게재일자 : 23년 3월 3일(금)



한국농어촌공사
농 지 은 행 처

목 차

□ 농지은행관리원

1. 올해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주년 소감과 함께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 3
2.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전과 후의 농지 관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농지 ‘상시’ 조사를 통해 얻는 이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4
3. 농지 조사 등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농지조사의 애로 중 하나도 전문성이었습니다. 농지은행관리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은 무엇입니까? ----- 5
4. 농지원부를 농지대상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229개 지자체를 지원을 했는지요. 또한, 농지대상으로의 전환이 가져올 장점은 무엇일까요? ----- 6
5.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 1년 쉽없이 달려왔습니다. 아직 1년이라서 성과와 함께 아쉬웠던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7
6. 출범 1주년 성과 발표 시 앞으로 AI 기반 농지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AI 기반 농지조사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추진할지, 청사진이 있을까요? ----- 8
7. 농업인들에겐 농지은행관리원이 생소해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향후 농지은행관리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신다면요. ----- 9

1. 올해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주년 소감과 함께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 지난 21년도 LH공사 직원의 농지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자체 중심의 농지관리 체계보완, 체계적인 농지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기존의 농지은행사업을 양적, 질적으로 보완하고, 농지상시 조사 등 농지관리기능의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로서 농지은행관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 농지은행관리원은 2월 18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농지은행관리원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농지은행관리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고민하고 방향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농지은행관리원은 이제야 고객중심 농지플랫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고객중심 농지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전과 후의 농지 관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농지 ‘상시’ 조사를 통해 얻는 이점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농지은행관리원 출범 전에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농지관리를 했습니다. 지자체 농지담당 공무원이 농지 취득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다 보니 업무가 가중된 점이 있었고 잦은 인사로 전문성을 쌓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농지법에는 지자체가 1년에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5개월이라는 한정된 기간과 최근 5년 내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다보니 체계적인 농지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 이러한 지자체 행정을 보완·지원하기 위해 우리 원은 지난해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농지대장 등 농지행정 관련 DB뿐만 아니라 토지대장, 건축물정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자료 등 타 기관의 DB를 수집, 연계하여 분석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촘촘한 농지관리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 연간 상시조사를 통해 실태조사가 필요한 정보를 특정하여 지자체에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집중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지자체 농지관리체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농지 조사 등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농지조사의 애로사항 중 하나도 전문성이었습니다. 지자체 농지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 ☐ 농지은행관리원이 설립되면서부터 시작한 업무 중 하나가 지자체 농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농지정책 및 제도에 대한 교육과 맞춤형 법률 컨설팅입니다. 지난해 농지은행관리원 소속 변호사와 지자체의 농지 업무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강사로 하여 총 2,765명의 공무원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을 했으며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컨설팅으로 양질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올해는 토론과 실무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지난 해 수준의 규모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공사 내 농지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직원 교육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4.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229개 지자체를 지원을 했는지요. 또한, 농지대상으로의 전환이 가져올 장점은 무엇일까요?

- 229개 지자체가 모든 농지에 대해 농지대장을 보다 원활히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토지대장과 농지원부의 전국 농지 데이터를 농지대장 초기 데이터로 변환 후, 229개 지역별 업무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지자체의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업로드 되도록 유선 및 원격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농지원부는 1973년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농지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업인별 기준으로 작성되고 농업경영을 입증하는 자료로써의 성격이 강하다 보니 필지별 농지정보 관리기능이 취약하였습니다.
- 농지대장은 농지의 소유·이용 정보를 필지별로 작성하면서 농지의 실제현황과 임대차 현황 정보 등을 대장에 담도록 하는 등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을 보다 세밀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성대상도 1,000㎡이상의 농지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농지를 대상으로 관리하게 되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 농지은행관리원은 지난 1년 쉽없이 달려왔습니다. 아직 1년이라서 성과와 함께 아쉬웠던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농지은행관리원의 출범 후 1년간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농지 종합관리기구로서 자리매김을 위하여 농지상시조사를 통한 농지 관리강화, 농지대장 전환, 농지은행 역대 최대사업비 집행, 청년 농 맞춤형 농지 지원 강화 등을 위해 큰 노력을 해왔습니다.
- 농지취득과 소유, 이용과 전용 현황을 파악해 타목적 이용이 의심되는 농지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에 제공하고, 저활용 농지를 분석하여 청년농 등 신규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 스타트업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를 발굴·선별하였습니다. 또한 농지원부 제도를 개편해 농지대장 제도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금리인상으로 인해 농업인이 농지를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3년에는 농업인의 매매지원단가를 인상하여 농업인 자부담을 완화해 영농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지법상 농지상시조사 현장 조사원의 사유지 출입 권한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농지조사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조사원의 조사대상 토지 출입에 대한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원활한 농지상시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6. 출범 1주년 성과 발표 시 앞으로 AI 기반 농지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AI 기반 농지조사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추진할지, 청사진이 있을까요?

- 현재까지 농지상시관리조사는 담당자가 직접 지적도와 항공영상을 기반으로 필지별 형상 변화 등을 확인해야 했다면 AI를 기반으로 한 농지상시조사는 AI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농지에 설치한 건축물의 위치 및 형태, 면적 등을 분석하고 농지행정 자료와 비교하여 허가되지 않은 불법시설 설치, 면적 위반 등을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시스템입니다.
- 이후, 공사에서 AI가 분류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지자체 행정처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통지합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농지조사·분석을 통해 타목적 이용 가능성이 큰 농지를 신속, 정확하게 찾아냄으로써 농지투기 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23년)는 인공지능(AI) 도입을 위한 사례조사, 업무분석을 추진하고 일부 지역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적용여부를 확인 후 내년부터 인공지능 기반으로 농지관리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7. 농업인들에겐 농지은행관리원이 생소해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향후 농지은행관리원이 나아갈 사업방향을
제시해주신다면요.

- 농지은행관리원은 농지상시조사 및 농지 정보제공사업,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인 농지은행사업과 농지관리기금을 위탁관리 및 운용하는 농지종합관리기구입니다.
- 농지은행관리원은 유용한 농지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농지가 필요한 사람이 더욱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고객중심 농지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농지정보종합플랫폼과 농지거래플랫폼을 구축해나가고자 합니다.
- 먼저, 농지거래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여 농업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청년농 유입 및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확대를 통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 기능 강화, 온라인 전자계약 도입 등 디지털 사업 추진체계로의 전환으로 수요자 편의성 제고, 농지은행전문가 양성을 통한 질적서비스 제고를 추진해 나갈 것이며, 수요자 맞춤형 농지거래플랫폼을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농지정보종합플랫폼은 농지 정보의 수집, 조사, 분석, 관리를 통해 수요자가 희망 맞춤형 농지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농지대장을 중심으로 관련 DB를 연계하여 모든 농지에 대한 필지별 통합 DB 구축과 농지조사분석시스템을 통한 신속·정확한 농지 상시 모니터링 체계 마련, 농지의 소유·이용 등 농지종합정보의 대국민 제공 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